

2026년 7월 13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연세 급락으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점

이번주 코스피는 1) 미국 6월 CPI, 2)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 증언, 3)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국 금융주 실적, 4) ASML, TSMC 실적, 5) 국내 반도체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주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100~8,100pt).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전 세계 주도주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연속적인 주가 하방 압력에 노출됐지만, 주 후반 들어 주가 급락 과도 인식, 메모리 업황 조기 피크아웃 과장론 등에 힘입어 투매 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 이번주에도 매크로, 실적 측면에서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으며, 이들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간 위축됐던 투자심리와 꼬였던 수급이 얼마나 정상화되는지가 관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10일 기준 선행 PER 6.36배), 주중 6월 CPI 등을 통한 매크로 안도감 확보 시나리오 등을 고려 시, 지난 금요일처럼 반도체 이외에도 MLCC, 전력기기, 소비재, 증권 등 여타 주력 업종들로도 수익률 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을 필요.

퀀트/자신배분 최재원
cjw65056@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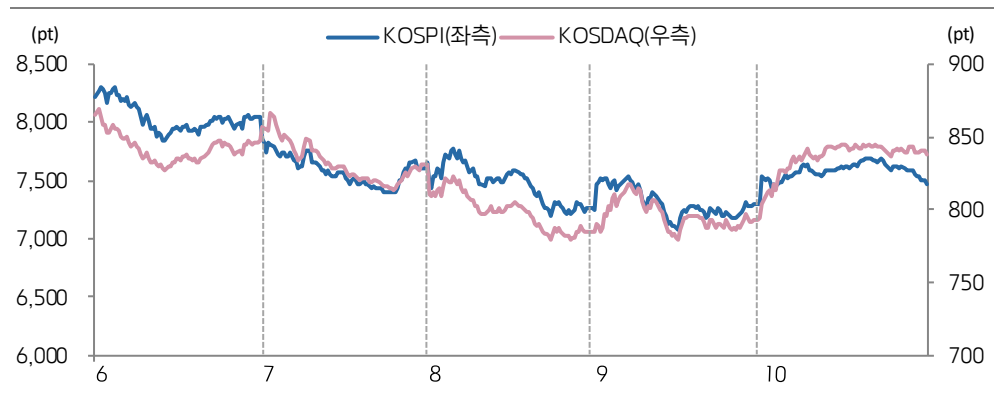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반도체 업황 정점 우려와 중동 리스크로 급락한 뒤, 주 후반 저가매수세 유입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하락 마감 (KOSPI -7.57%, KOSDAQ -3.57%).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 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으나, 실적 개선의 지속성보다 반도체 업황 정점 통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급격히 확대. 여기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과 미국의 대이란 공급 소식, 미국 반도체주 급락까지 겹치며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됐고,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할 정도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 특히 주 초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 이어 주중에는 개인의 투매성 매물까지 출회되며 코스피는 이를 연속 5% 안팎 급락. 다만 주 후반에는 미국 반도체주 반등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등했고, 10일 (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낙폭 일부를 만회. 코스닥 역시 주중 위험회피 심리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마지막 거래일 5.47% 상승하며 변동성 장세 속 기술적 반등을 나타냄.

대외적으로는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국내 위험자산 회피를 자극한 반면, 주 후반 미국 기술주 반등과 반도체주 저가매수세가 투자심리를 회복시킴. 다만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실적 개선 지속성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의존한 후기 사이클 신호로 해석되면서 반도체 피크 아웃 논란이 확대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하락 과정에서 수급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부각. 외국인은 주 초반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으나 8일 이후 매수로 전환했으며, 개인은 반대로 투매에 나서는 등 수급 주체 간 방향도 급변. 결국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과 주 후반 기술적 반등을 확인했음에도, 반도체 사이클 정점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레버리지발 수급 변동성이 맞물리며 심리와 수급이 지수를 지배한 한 주.

업종별로 오락/문화(+3.66%), 통신(+2.46%), 화학(+0.69%), 비금속(+0.55%), 음식료/담배(+0.37%)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송장비/부품(-9.43%), 전기/전자(-9.35%), 제조(-8.62%), 의료/정밀기기(-6.76%)는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4조 764억원)은 전기/가스(-196억원), 운송/창고(-54억원), 섬유/의류(-41억원), 증권(-22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2,920억원)은 금융(+5,311억원), 화학(+1,966억원), 보험(+1,286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7 월 13 일	월	한국	7 월 ~10 일까지 수출 (YoY)	7 월	-	85.9%	
			7 월 ~10 일까지 수입 (YoY)	7 월	-	35.6%	
7 월 14 일	화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6 월	95.5	95.3	
			CPI (MoM)	6 월	-0.1%	0.5%	
			CPI (YoY)	6 월	3.8%	4.2%	
			근원 CPI (MoM)	6 월	0.3%	0.2%	
			근원 CPI (YoY)	6 월	2.8%	2.9%	
	실적	회의	발언	JP 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			
				연준 반기 의회 보고 (~15 일)			
				월러 미연준이사·워시 미연준의장			
	7 월 15 일	수	중국	GDP 성장률 (YoY)	2 분기	4.8%	5.0%
				산업생산 (YoY)	6 월	4.6%	4.5%
소매판매 (YoY)				6 월	-0.1%	-0.6%	
고정자산투자 (YTD YoY)				6 월	-5.2%	-4.1%	
미국		뉴욕 제조업지수	7 월	8.6	5.7		
		PPI (MoM)	6 월	-0.1%	1.1%		
		PPI (YoY)	6 월	6.2%	6.5%		
		근원 PPI (MoM)	6 월	0.4%	0.4%		
		근원 PPI (YoY)	6 월	5.2%	4.9%		
		한국	실업률	6 월	-	2.8%	
			실적	ASML, 모건 스탠리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뉴욕 연은 총재				
7 월 16 일		목	미국	소매판매 (MoM)	6 월	0.3%	0.9%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7 월	15.0	10.3
				NAHB 주택시장지수	7 월	35	35
	공개	금융통화위원회	7 월	-	2.50%		
	실적	TSMC					
	발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공개	연준 베이지북(오전 3 시)					
	7 월 17 일	금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7 월	51.3	49.5
				미시간대 1 년 기대인플레이션	7 월	-	4.6%
산업생산 (MoM)				7 월	0.2%	0.1%	
수출 물가지수 (MoM)				6 월	-	1.3%	
수입 물가지수 (MoM)				6 월	-0.6%	1.9%	

2026년 7월 13일

KIWOOM WEEKLY

실적	넷플릭스
휴장	한국(제헌절)
발언	달러스 연은 총재
파생	미국 옵션만기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주 코스피는 1) 미국 6월 CPI, 2)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 증언, 3)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국 금융주 실적, 4) ASML, TSMC 실적, 5) 국내 반도체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주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100~8,100pt).

10일(금) 미국 증시는 SK하이닉스 ADR(+12.8%) 상장 흥행에 따른 반도체주 투자심리 호전에도, 트럼프의 “이란과 휴전은 종료” 발언에 따른 지정학적 노이즈 재생성, 차주 주요 이벤트를 앞둔 대기심리 등이 장중 눈치보기 장세로 전환시킴에 따라 소폭 상승 마감(다우 +0.3%, S&P500 +0.4%, 나스닥 +0.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1%).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전 세계 주도주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연속적인 주가 하방 압력에 노출됐지만, 주 후반 들어 주가 급락 과도 인식, 메모리 업황 조기 피크아웃 과장론 등에 힘입어 투매 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 이번주에도 매크로, 실적 측면에서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으며, 이들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간 위축됐던 투자심리와 꼬였던 수급이 얼마나 정상화되는지가 관건.

매크로 상으로는 6월 CPI와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상하원 의회 증언이 메인 이벤트가 될 예정. 먼저 6월 CPI는 헤드라인과 코어의 컨센서스가 각각 3.8%(YoY, vs 5월 4.2%), 2.8%(YoY, vs 5월 2.9%)로 지난 달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형성된 상태. 이는 지난 5월 CPI가 사실상 정점(or 피크아웃)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올해 상반기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안은 유가 급등에서 주로 기인했으나, 6월 평균 WTI가 81달러로 5월 평균(98달러)에 비해 큰 폭 둔화됐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

6월 CPI 발표 직후 예정된 케빈 워시의 의회 반기 보고회에서는 A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7월 FOMC 포함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 암시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 현 시점에서는 그의 발언이 증시에 충격을 줄 확률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6월 CPI 한국시간 밤 9시 30분 -) 케빈 워시 증언 밤 11시). 7월 미-이란 휴전 불안에도 유가 상방 압력 제한, 6월 비농업 고용 둔화 등 연준의 긴축 강도를 높일만한 재료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 이를 고려 시, 6월 CPI, 케빈 워시 보고회 이후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시장금리 상승 압력 제한 등 매크로상 안도감을 확보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사실 지금 매크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판단. 미국 2분기 실적 시즌 포문을 여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금융주 실적은 최근 주가 강세 분에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에, 대손충당금 증가, AI사모신용대출 현황 등이 세부 실적 내용이 중요할 전망.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AI 주임을 감안 시, 이들 금융주 실적은 이전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비슷한 맥락에서 주말 중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미국의 이란 공습 재개 등 미-이란 갈등 재발이 주 초반 일시적으로 유가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증시 충격은 제한될 전망.

이처럼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증가율 피크아웃 우려, AI 사이클 조기 종료 논란 등이 최근 증시의 주된 화두이기에, 주중 예정된 ASML, TSMC 실적 이벤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 ASML 실적에서는 이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2분기 가이던스(매출 84~90억 유로, GPM 51~52%) 높게 제시하면서 이번 분기 호실적이 예고된 상태. 따라서, 분기 호실적 달성 여부를

2026년 7월 13일

KIWOOM WEEKLY

넘어 신규 수주 증가 및 DRAM용 EUV 수요 개선 여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들의 장비 발주 계획 언급 등을 통해 반도체 업 사이클 신호가 재확인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TSMC는 국내 반도체주와 함께 동반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7월 이후 주가가 약 9% 하락을 경험.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 연간 가이드언스를 추가로 상향할지, 지난 분기에 이어 CoWoS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음을 언급할지가 주가 회복 유인을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 CoWoS 수급 변화는 AI 가속기 수요(HBM 수요)와 잠재적인 DRAM 수급(HBM 수요 증가 → DRAM 공급 제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TSMC 실적이 코스피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한편,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흥행으로 주도주인 반도체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은 안도 요인이지만, 동시에 국내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연속성을 띠기 위해서는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존재. SK하이닉스 ADR 프리미엄이 현재처럼 10%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상호전환 거래가 별도의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는 지, 7월말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CAPEX 상향되는지 등이 그에 해당.

이는 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하는 일인만큼, 이번주에 한해서는 “SK하이닉스 ADR 흥행에 따른 반도체주 중심의 국내 증시 투자심리 회복 경로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는 것이 적절. 더 나아가,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10일 기준 선행 PER 6.36배), 주중 6월 CPI 등을 통한 매크로 안도감 확보 시나리오 등을 고려 시, 지난 금요일처럼 반도체 이외에도 MLCC, 전력기기, 소비재, 증권 등 여타 주력 업종들로도 수익률 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을 필요.

2026년 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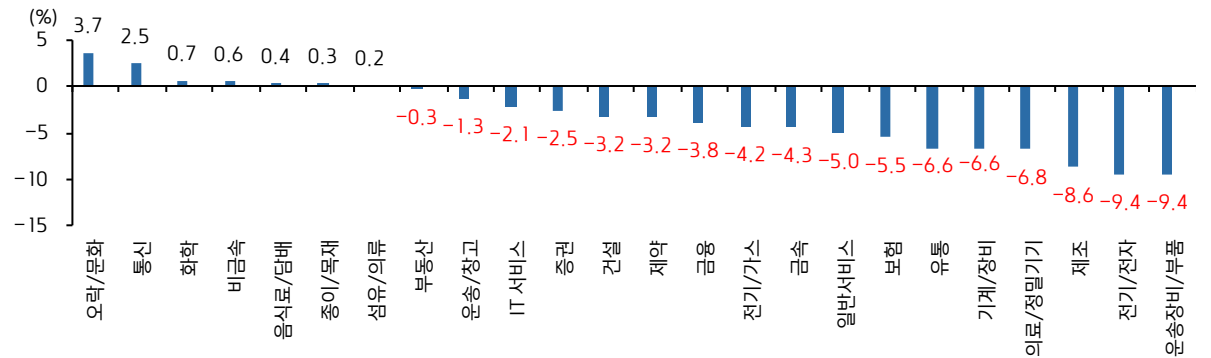
KIWOOM WEEKLY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7,475.94	2.5	-7.6	-3.3	77.4
대형주	8,243.59	2.5	-8.0	-3.1	88.3
중형주	4,049.42	3.3	-3.2	-6.8	8.8
소형주	2,317.42	3.7	-0.1	-3.0	-8.0
코스피 200	1,196.69	2.3	-7.9	-2.5	97.5
코스닥	837.43	5.5	-3.6	-12.0	-9.5
대형주	2,092.99	5.3	-5.3	-13.1	-7.0
중형주	847.77	6.5	-2.1	-11.8	-5.8
소형주	2,306.22	4.8	-0.9	-8.7	-10.4
코스닥 150	1,456.12	5.0	-5.3	-12.9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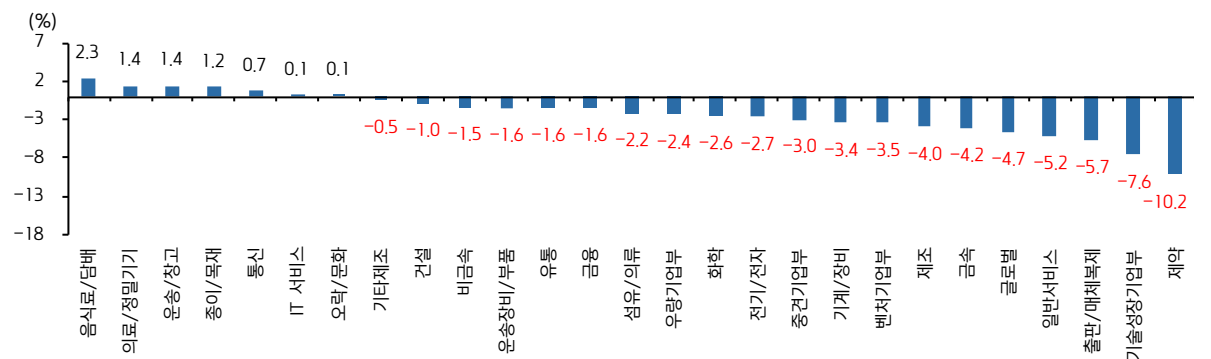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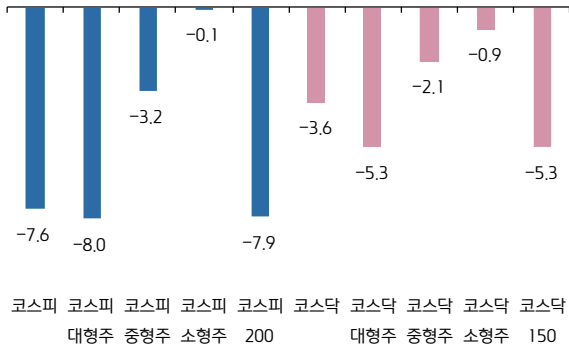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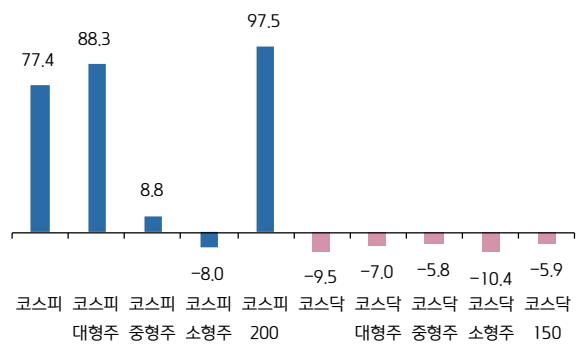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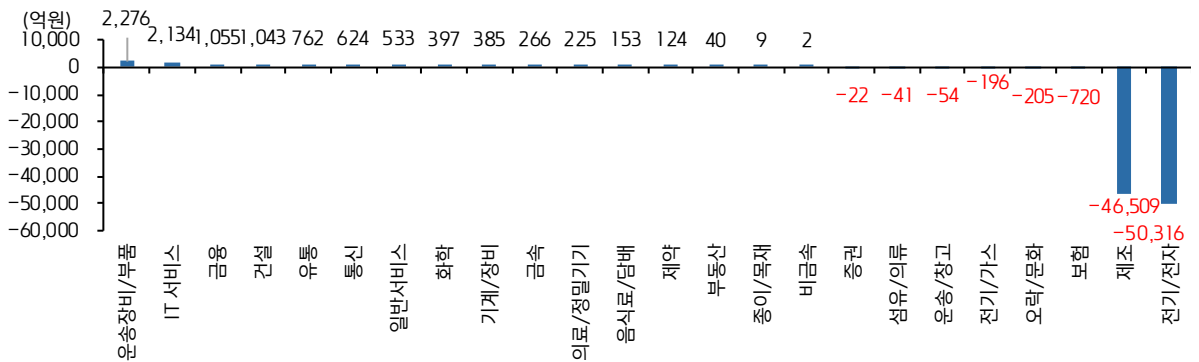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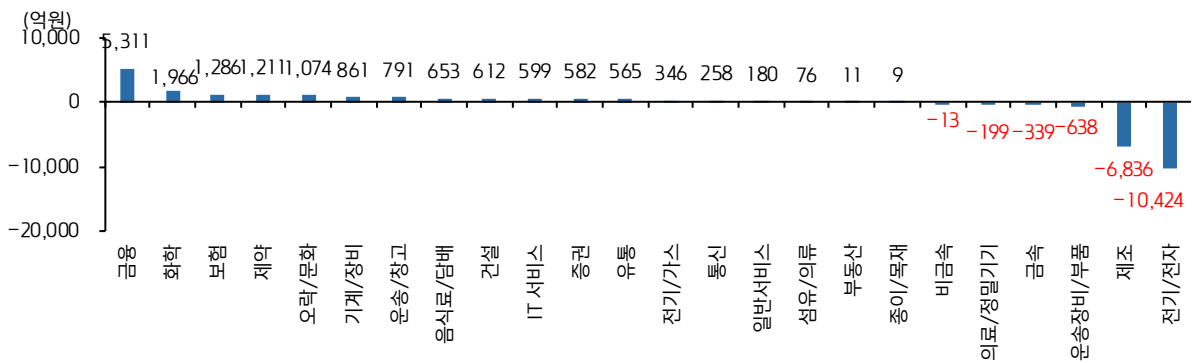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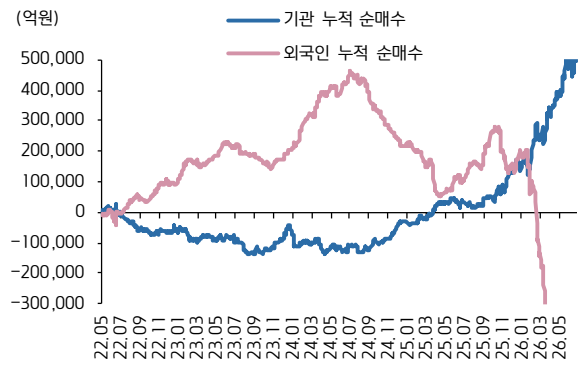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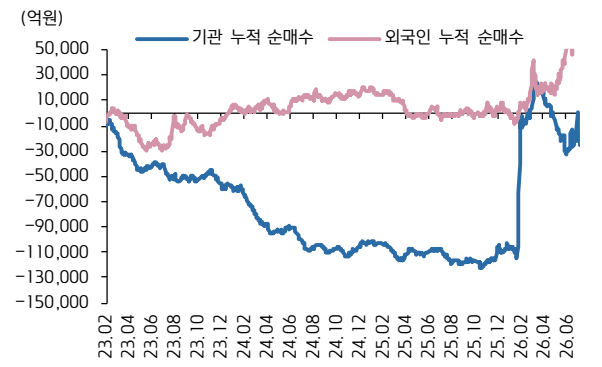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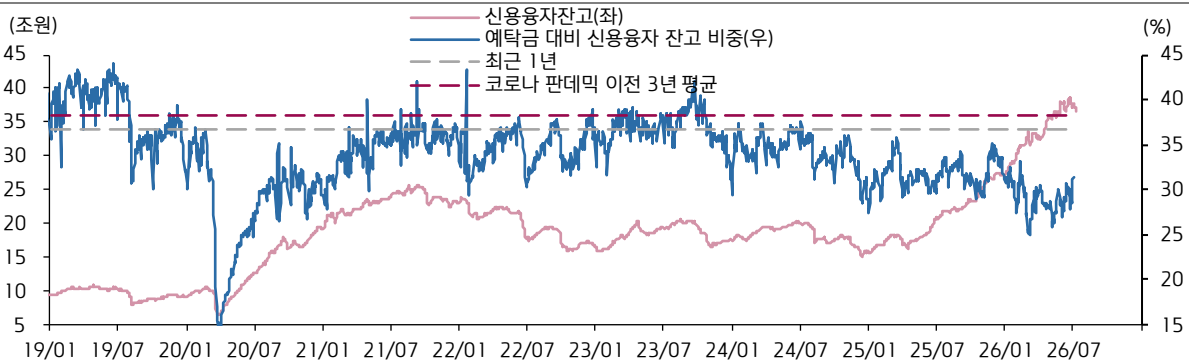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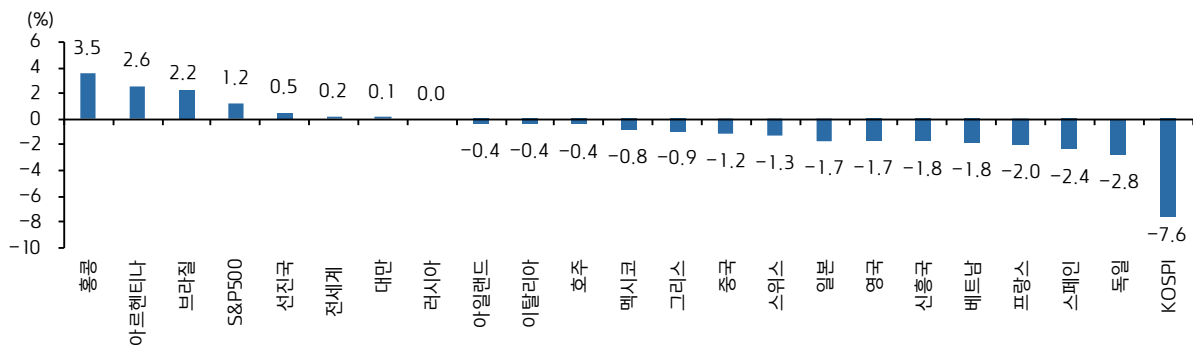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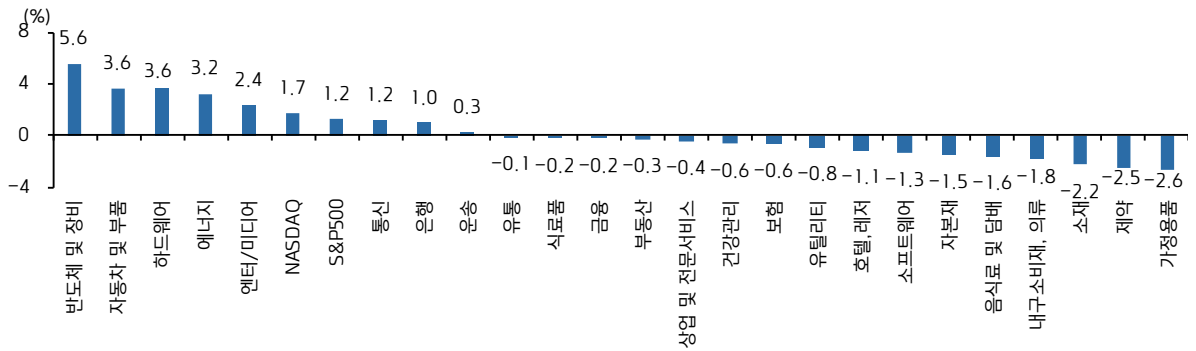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13일

KIWOOM WEEKLY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